



韓國의 圖書館 發展 計劃(提案)

金 重 漢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교수)

編輯者 註 : 이 글은 1959年 渡美 以後 現在까지 10 餘年間 美國에 滞在하면서 美國 圖書館界에서 많은 活躍을 하고 계신 우리 나라의 唯一한 圖書館學 博士이신 金重漢 博士께서 지난 5月 國際會議에 參席 次 잠시 歸國하여 故國의 館界를 보고 돌아 가신 후 故國의 圖書館界가 보다 더 바람직한 來日이 建設 되기를 念願하는 뜻으로 執筆해 주신 글이다.

다만 現實의으로 아직 實現 시키기에 어려운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近代化의 걸음을 재촉하여 總力 的인 作業을 推進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急進의으로 社會現像이 發展해 가고 專門化되어 감에 따라 社會가 圖書館에 對한 認識이 成熟되고 보다 더 積極 的인 要求가 不遠間 到來할 것이라고 하는 信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進路가 될 수 있는 좋은 提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이 筆者인 金 博士께서도 序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韓國의 圖書

館 發展 長期計劃을 樹立하는 데 있어서 對話의 테 마와 한 아이디어로 提示하고 있는 만큼 充分하고 客觀的인 分析 批判 檢討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항상 故國의 館界 發展과 成長을 위해 念慮와 激勵을 아끼지 않으시는 筆者에게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筆者의 略歷 : 1959年 渡美, 1960年 Indiana University에서 圖書館學 碩士 學位 取得, 뉴욕주 Brooklyn 市立圖書館과 뉴저지주 East Orange 市立圖書館 등에서 2年間 勤務, 1964年 Rutgers University에서 “公共圖書館의 Film Service의 한 研究”란 論文으로 博士 學位 取得, Maryland State University Library에서 1年間 勤務, 1965年 East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助教授로 3年間 勤務, 1969年 現在 Indiana State University에서 圖書館 學科 副教授로 在職中.

I. 圖書館 發展에 관한 國家의 重要 案件

한 나라가 해야 할 圖書館 專業에 대한 國家的 投資를 함에 있어 어디에 重點을 두고 무엇을 얼마만큼 어떠한 順序에 따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解答을 여기서 試圖하여 보고자 한다. 할 일의 順序를 定하는 일은 넘쳐지 못한 資源을 가지고 最大限의 效果를 거두어 보자는 目的을 위하여 賢明한 措處라는 것은 누구나 肯定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다음에 말하고자 한다.

1. 國家書誌 編纂事業

文化事業에 있어서도 企業體의 損益計算表와 같이 業績의 會計를 해야 한다. 書誌目錄을 만든다는 것은 文化의 業績을 會計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00년 전의 東海文獻錄이란 圖書解題가 韓國의 첫 書誌目錄이라면 이후에 이를 이어나갈 아무런 努力이 없었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프랑스 사람 Courant*의 韓國書誌를 위시하여 近者에 와서 韓國의 書誌目錄을 外國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흔히 보는데 日帝에서 解放된지 한 世代가 되는 지금에 와서도 韓國 國家書誌事業이 永

久的인 軌道에 서 있지 않으니 韓國圖書館 사람으로 낮 뜨거운 일이다.

흔히 말하기를 韓國文化에 固有한 獨特한 것이 없다고 한다. 實은 固有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것은 좋은 나쁜 우리와 찾고 規定하고 널리 소개하고 研究해야 할 것이 等閑히 되어 이를 남에게 의존하게 된 것이 오랜 歷史였으니 우리의 것이 없다는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近年 美國에 있어서는 韓國에 대한 學的 關心이 높아져서 “韓國學”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로 여러 學者들의 韓國 研究가 活潑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포드(Ford) 財團에서 韓國學研究所가 있는 몇개의 美國 大學에 50萬弗을 주어 資料 蒐集에 쓰도록 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韓國 사람들로서 특히 圖書館 사람들로서 거북한 일은 이러한 장사끼리가 생겨도 이에 應할 수 있는 態度가 되어 있지 않다는 事實이다. 韓國資料가 팔릴 판인데 이런 資料에 관하여 잘 아는 사

* Courant, Maurice Auguste Louis Marie.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Paris, E Leroux, 1894-96. 3 vols. A supplement, 1901.

람도 없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國家書誌目錄이 없으니 어디서 어떻게 찾고 購入할지 모르겠다는 탄성을 韓國을 찾는 美國 圖書館人들에게서 듣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에 관한 古今의 모든 資料를 망라한 書誌目錄을 누가 계속해서 꾸미고 發刊해야 하지 않겠는가?

2. 國家發展에 緊要한 研究資料의 蒐集 確保

흔히 말하는 “民族文化의 中興”은 近世 300년의 弱國정책이 가져온 엄청난 空白를 되도록 短時日 안에 극복하고, 20世紀 後半期에 들어서 더욱 急速度로 發展해 가는 先進國들을 붙잡아 보자는 努力이다.

加速度的으로 發展하는 西歐 技術文明을 쫓아 가려면 先進國이 저지른 과오를 피하고 그들의 施行 錯誤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들이 現在 當面하고 있는 問題와 方向을 알서 研究하고 겨울삼아, 韓國에 가장 適當한 方策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現在까지 先進國에서 이루어 놓은 業績과 쌓아올린 知識의 資源을 迅速히 入手하고 이를 자기 것으로 消化하고 利用하는 것이 時急하다.

여기서 나오는 當然한 質問은: 國家發展의 促進을 위하여 調査 研究 및 學究 資料가 國內外에서 蒐集되고 確保되어 있어 學者나 研究家나 기타 必要한 사람에게 公開 利用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韓國의 가장 심각한 人口問題의 長期的 解決策을 調査 研究 成案하려 할 때 世界各國의 研究結果나 實驗資料를 얻어야 한다. 人口問題에 관한 國內外의 모든 資料를 入手하게 되어 國家의 人口問題 解決이 1年이라도 빨라지면 그 만큼의 惠澤을 나라가 받게 된다.

3. 專門 學者 司書의 確保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韓國의 長期的 人口問題 解決이 國家의 必要한 研究課題라면 이에 必要한 資料를 世界 여러 나라에서 찾고 추려 蒐集하고 書誌目錄과 索引을 作成하여 一般의 利用에 提供하는 일을 責任 맡을 專門司書가 各分野에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專門司書는 이 問題를 專門의 研究하는 學者와 專門家들과 긴밀한 연락을 맺고 이들을 도와주는 同時에 이들의 諮問을 얻고 一般 地方圖書館에 特別書誌目錄을 配付하고 一般國民의 물음에 應하는 것을 전적으로 責任 맡는 것이다.

이러한 專門分野의 司書는 人口問題에 있어서와 같이 社會科學의 여러 分野에서 必要할 뿐 아니라 科學과 技術 情報 資料의 導入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産業分野는 勿論, 韓國 文化의 創造와 發展에 必要한 人

文科學과 藝術 部門의 資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가져야 할 根本的인 資格은 主題와 資料에 관한 專門的 知識이며 또한 이들 專門家의 任務는 한 分野의 資料를 蒐集 整理하고, 各種 書誌 索引 抄錄 등을 編成하여 圖書館과 一般 利用者의 諮問에 應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의 일은 결코 보기에는 책이란 물건을 다루는 데 끄치는 것 같으나 실상은 主題에 관한 知識과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우는 그 分野의 專門家나 學者들의 대우와 同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質問이 생긴다: 國家發展에 必要한 知識과 情報資料를 여러 분야에 걸쳐 철저히 또는 組織的으로 國內外에서 蒐集하는 「資料專門家」즉 國民이 信賴할 수 있는 專門書誌를 다룰 수 있는 有能한 司書學者들이 各分野에 제대로 確保되어 있는가?

4. 知識과 情報의 全國의 普及

國家 發展에 必要한 中樞의 資料와 專門職 司書의 確保가 이루어지는 同時에 이의 惠澤이 여러 學校, 大學, 公共機關, 社會團體, 産業界 및 一般 國民全般에 미치게 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必要한 모든 營養소가 中樞神經과 두뇌 뿐만 아니라 몸全體로 과부족 없이 分配되어야 하는 것이다.

‘國民개학’은 막연한 理想이 아니라 高度로 發達한 工業技術國家를 이루고 維持하는 데 必須條件이다. 모든 部門의 教育訓練을 가장 効果的으로 무리 없이 하기 위해서는 教育資料의 選擇과 管理를 맡을 수 있는 司書가 必要하다. 學校의 예를 들면 敎師가 敎科書만 가지고 70명 가까운 學生들을 擔當하여 每週日 20時間以上 가르치고 있는 한심한 現象을 하루 속히 正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豊富한 教育資料의 提供으로 敎師들의 能率을 올리고 學生들의 배움을 充實하게 하는 것이 學校圖書館 司書들의 責任이다.

一般 成人 市民들 및 都市, 農漁村 部落民들을 위한 마을文庫의 普及은 圖書館 事業의 惠澤을 못 받는 大部分의 國民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圖書館의 普及은 農漁民 生活改善의 速度와 直結된다. 地方民들의 敎養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들의 生産性을 向上하고 收入을 增大시키는 아이디어와 手段을 普及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中央教育研究所가 作成한 마을文庫의 效果에 관한 研究報告에 의하면 文庫 利用의 成敗는 마을의 讀書會 指導者의 熱誠과 力量에 달렸다고 한다. 美國 大都市의 公共圖書館들이 都心地 貧民窟에 사는 흑人층에 도서관 서어비스를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갖은 努力을 다 傾注하고 있으나 그 成果가 시원치 못한 것은 黑人들의 빈민窟

생활에 파고 들어가 圖書館 資料利用을 그들의 生活과 결부시키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무슨 事業이나 그 成果는 그 業에 從事할 수 있는 專門家의 有無와 또한 그들의 熱意와 能力에 달려 있는 것이다.

圖書館 서비스의 全國的인 普及과 因果關係를 가진 事業이 있다. 즉 出版事業이 그것이다. 소위 知識의 暴發時代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실은 知識보다 刊行物의 爆發時代라고 하는 말이 正確하다. 물론 刊行物의 產出量과 文化水準은 正比例한다.

韓國의 出版業界는 資金不足과 市場의 협소로 不振狀態에 빠져 있는 것이 事實이다. 國民들의 購買力 向上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現實情이므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政府의 國家政策으로 財政的 投資를 增大시키는 것이다. 이는 圖書館事業에 대한 政府의 投資의 大量化를 말한다. 文化公報部에서 出版業界를 위하여 出版資金을 다량씩 주는 것도 좋으나 一般의 구매력을 늘리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出版을 해 보았자 소용없는 노릇이다. 姜周鎭 圖協 會長의 말과 같이 도서관이 잘 되어야 必然的으로 出版業界가 잘 되는 것이지 出版業界가 잘 됐다고 해서 圖書館이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美國의 경우 兒童圖書의 구매市場은 때만이 公共圖書館이라는 것이 事實이다. 소위 우량도서나 學術圖書일수록 판로를 圖書館에 依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이 안사면 이런 책들은 出版을 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다.

前述한 政府의 投資라 함은 政府圖書館을 많이 만들고 政府가 이를 管理 運營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政府의 원조는 환영하나 政府의 不必要한 간섭은 絶對기피해야 할 일이다. 政府만이 가장 効果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直接 運營이 아니라 資料와 人員 擴充에 拍車를 가할 財政的 원조이다. 미국의 圖書館 援助法과 같이 政府는 用度를 規定한 財政원조를 하고 이의 使用을 감독할 따름이지 圖書館 運營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重要한 質問은 : 政府의 圖書館事業 普及을 위한 財政的 投資가 充分한가?

위에서 말한 네 가지 絶對的인 重要課題의 時急성에 따른 順序를 簡單하게 定하기 困難한 것은, 이 네 가지가 同時에 시작되고 推進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추진 速度에 있어 資金 調達能力과 進度에 따라 빨리 되는 것과 늦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가장 時急한 것은 무엇보다도 國立圖書館들의 新設 擴張과 그들의 中樞의 國家的 事業을 하루 속히 軌道에 올려 놓는 일이다.

II. 圖書館 發展 1次 5個年 計劃 (具體的 提案)

앞 장에서는 네 가지 큰 課題를 推進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요약하여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인원과 자료의 국가적 수요를 시험적이거나 대강 추산하여 보았다. 보통 순서로 말 하면 구체적인 제안이 끝장으로 되어야 할 것이나, 독자에게 제안의 골자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순서를 바꾸었다. 이 제안은 완성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토의에 아이디어와 테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주기 바라며, 推定 숫자는 앞으로 있어야 할 個別的 問題의 자세한 연구를 거쳐 수정 보충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 제안을 세 가지로 대분하면 첫째 일련의 國立圖書館 설치 보강에 관한 제안, 둘째 일반 圖書館 보강을 위한 일련의 제안, 셋째 圖書館 政策, 行政, 情報, 資料, 書誌, 整理 서비스의 中央一元化에 관한 제안 등으로 된다.

1. 國立 國會圖書館의 補強

國會圖書館을 補強 改編하여 이의 機能을 主로 社會科學 部門에 注力하도록 한다. 이 部門의 核心이 되는 緊要한 研究資料를 主題別로 集中的으로 國內外에서 철저히 蒐集하고 特別書誌를 編纂하여 전문가와 일반의 자문에 응하고 資料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主題別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機構의 一部를 補強 改編한다. 즉 主題別 資料室 또는 部門別 資料室 單位로 서비스 기능을 크게 보강한다. 行政的 補助的 서비스 즉 一般行政, 書誌編纂, 資料의 蒐集 整理 貸出 閱覽 같은 기능은 물론, 계속 一元的인 기능으로 보강한다.

보강된 전문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司書는 뒷장에서 자세히 推定한 것을 다음에 간추려 본다(圖表 1-5 참조).

전 문 분 야	인 원
정치, 역사, 지리	16
행정, 법률	8
사회문제, 사회보험	7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4
경영, 경제, 생산성	26
계	61

以上の 61名의 인원은 主題別 資料室을 건적으로 담당할 專門 司書들이다. 이 사람들의 할 일은 主題別 資料 서비스의 全國的 責任者로서 國內外 資料의 철

저한 調査, 選擇, 蒐集, 特殊書誌目錄 編纂, 專門家 學者와의 전국적인 連絡組織, 各 大學, 官廳, 團體, 學校, 公共圖書館, 一般個人에 대한 資料 서서비스를 맡은 사람들이다. 資料 서서비스는 데이터 서서비스를 포함하여 特殊 圖書館이 하는 모든 參考, 書誌, 情報, 도큐멘테이션 서서비스를 전부 포함한다. 이 사람들은 현재의 專門司書 人員을 그대로 두고 가외로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인원은 주로 行政의 後方 業務에 從事하게 되므로 별로 변동이 필요 없고 현재 입법참고 조사에 종사하는 專門人員들은 물론 本人의 희망에 따라 主題資料室 책임자로 전환할 수 있으나 個個 國會議員들의 研究調査 委屬에 應하는 데 繼續的으로 필요할 것이다.

主題 專門司書 한 사람에 대한 人件費를 100萬원으로 잡으면 61명에 6,100萬원의 人件費가 매년 所要된다. 이는 短時日內에 確保하기 어려운 것이니, 5個年 計劃으로 하면 每年 平均 12名의 增員이 必要하다. 主題 專門司書 자리 하나에 行政司書 하나인 一對一 比率로 잡으면 별 蹉跎이 없을 것으로 본다. 즉 主題 專門司書 10명이면 行政司書 10명이 必要하다. 專門司書 한 자리의 人件費를 100萬원으로 잡은 것은 主題司書와 行政司書 한 사람씩 합쳐 두 사람을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司書 한 사람의 月俸은 平均 4萬원 정도가 된다. 一般 行政 事務員은 따로 取扱함이 좋으므로 여기서 除外되었다.

國會圖書館의 現 藏書를 主題別 資料室으로 區分함이 必要하다. 上記 表에서 전문분야를 5個로 大分하였는데 資料室 構成도 이에 따라 4~5 分野로 대분하는게 좋겠다. 이보다 더 細分을 피해야 할 理由는 같은 資料가 몇 개의 다른 問題를 위하여 같이 使用되며 資料의 必要없는 重複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資料選擇과 서서비스 以外的 行政的인 일 즉 資料購入, 收書, 整理, 編目, 書誌作成, 印刷作業은 現存 圖書課, 參考書誌課에서 一元的으로 맡게 된다. 일의 一元化는 같은 일의 重複을 피하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 必要하다. 國會圖書館의 書誌編纂事業을 擴充하여 韓國의 國家書誌編纂을 擔當한다. 現在 參考書誌課의 機構內에 國家書誌 編纂事業을 組織하든지 參考書誌課를 局으로 昇格하여 이 일을 전적으로 맡도록 할 수도 있겠다. 主題 專門司書들은 書誌編纂에 協力하게 되나, 그들의 責任은 資料 調査, 蒐集 등 直接 서서비스이므로 一般書誌 編纂에 그들의 時間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다. 國家書誌 編纂問題는 後에 따로 提案하였다.

韓國內의 刊行物은 全部 最少限 一部씩 빠짐 없이 蒐集 保管한다. 現行 國內 刊行物 納本制는 물론 存續시키되 이의 시행을 철저히 한다.

國會圖書館이 맡은 社會科學 分野의 中樞의 研究資

料의 推定數量과 費用은 圖表 19—38 및 77에 細分시킨 바 있으나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전 문 분 야	정간물 (종별수)	단행본 (종별수)	자료비 (\$)
법률, 정부, 행정	500	4,660	16,600
정치, 언론, 역사, 지리 등	1,000	2,200	84,500
사회학, 사회문제 관계	800	4,700	23,650
상업, 경영, 경제, 노자	663	6,850	42,550
일반 참고서		2,000	30,000
계	2,963	20,410	197,300

1年 資料費 \$ 197,300(5,600萬원)은 國會圖書館의 1969年도의 資料費 豫算 1,062만원*의 5.6배가 된다. 5個年 計劃으로 每年 900萬원을 增額하면 5年 內에 所要豫算 水準에 到達할 수 있다.

國會圖書館의 現 藏書 中에 社會科學 以外的 部門 即 純粹, 應用 科學, 語文學, 藝術 등의 圖書가 43,330권이 있으니 12만 장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金額으로 換算하면 1,300萬원 내지 2,000萬원의 가치가 된다. 불필요한 장서를 유지하는 일은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니 이를 다른 國立圖書館의 社會科學 系統 資料와 交換하든지 國立大學이나 私立大學으로 處分하여 回收된 資金으로 資料購入費에 充當하든지 다른 國立大學에 寄贈하든지 함이 좋겠다.

국회도서관이 가져야 할 장서의 수량은 앞으로 생산될 간행물의 수량의 제한이 없듯이 한이 없는 것이다. 圖書館은 吸收만 하였지 排洩을 할 줄 모르는 機關이어서 有機體로 말하면 新陳代謝가 잘 안 되는 過大肥滿症에 걸리기 쉬운 것이다. 圖書가 100萬이 넘으면 그 크기를 자랑하기 보다 그 서서비스의 健康을 念慮하여야 한다. 쓸모가 없고 다만 歷史的 價値 밖에 없는 資料는 처분을 못할 경우에는 維持費가 低廉한 倉庫에 移管 保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國會圖書館은 종래의 行政機能 中心의 體制에서 目的 問題解決 中心 即 主題別 서서비스 問題別 서서비스 中心으로 體制를 바꾸어야 한다. 즉 主題 專門司書를 大幅 增員하고 國家發展에 不可缺한 先進 外國의 研究資料를 調査, 導入, 確保하고 國立圖書館으로서 마땅히 責任 져야 할 國家書誌編纂事業을 擔當한다고 하면, 年間所要 豫算 目標額은 現 1年 人件費 增額(專門司書 61名分) 6,100

* 국회도서관 참고 서지과 제공.

* Wolf Management Service, New York. Developmental Book Activities and Needs in the Republic of Korea. Prepared by Stanley A. Barnett and other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ntrol No. AID/Csd-1162) 1966.

萬원, 國家書誌編纂 人件費 增額(專門司書 10名分) 1,000萬원, 中樞的 資料費 增額 5,600萬원, 1970年度 豫算總額(推定額) 10,000萬원, 都合 2.27億원이다.

현재 韓國에 國會와 國立中央圖書館 兩 圖書館이 모두 國立圖書館의 機能을 가지고 있는데 國內와 國外的 意見*에 의하면 이를 병합하여 단일 國立圖書館으로 만드는 것이 중복을 피하고 行政的으로 統一이 되어 國立圖書館의 機能이 잘 運營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는 現實的으로 可能性이 稀薄하고 이 提案에서 論한 바와 같이 서어비스 部門을 달리하면 구태여 통일할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專門 研究圖書館으로서 그들의 機能이 強化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國立中央圖書館으로 말하면 全國의 公共 學校 圖書館 普及에 技術的으로 큰 責任을 갖게 되니 그것 만으로도 甚한 것이고 機能을 強化해야 할 처지에 있게 된다. 行政的 統一은 같은 目的의 圖書館 統率에 바람직한 것이나 각기 다른 目的의 機能을 가진 機關들의 行政統一은 오히려 그들의 발 목음을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한다.

2. 國立 中央圖書館

現在の 國立中央圖書館을 補強 改編하여 그 機能을 주로 人文科學 部門과 地方 公共圖書館에 必要한 一般 大衆 對象의 資料 서어비스 部門에 注力하도록 한다.

圖書館의 機構와 機能을 從來의 行政 中心에서 主題別 서어비스로 轉換 改編한다. 國內外 資料 選擇, 蒐集, 組織, 서어비스는 國會圖書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區分된 主題別 資料室 單位로 再編成 補強한다. 이렇게 해야 할 理由는 國立圖書館이 研究圖書館의 機能을 兼하려면 現在の 市立圖書館 役割에서 脫皮해서 美國國會圖書館이나 기타 國立圖書館들과 같이 學者, 研究家 一般에 公開하여야 하며 學生들의 自習室 提供은 市立圖書館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一般閱覽 座席 이외에 特別 研究室을 必要한데로 마련하여 長期的 恒久的 使用者에게 貸貸하는 方案도 있다. 大學教授, 學者들 및 기타 研究者들은 研究費를 얻고 있을 것이니 研究費 豫算에 研究室 貸貸料를 加算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國立圖書館의 機能을 主題別 專門資料 서어비스로 轉換함에 있어 國立圖書館이 專擅할 主題와 專門司書의 수요를 뒷장에서 자세히 推算하였으나 [도표 9, 10, 15 참조] 이를 간추리면:

專門司書 한 사람의 經費를 100萬원으로 잡으면 2,500萬원, 5個年 計劃으로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5名씩 增員하면 된다. 이 사람들의 할 일은 國會圖書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資料 서어비스를 責任 진다.

전 문 분 야	전문사서
문예, 문학, 언어학	17
철학, 종교	2
대중문고, 아동문고, 가정문고, 생활문고 마을문고, 교양문고, 여가활동	6
계	25

國立圖書館이 담당한 中樞的 研究資料蒐集은 國會圖書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당 전문사서들이 한다. 資料室 설치는 약간의 중복을 허용하되 되도록 各 전문 분야에서 같은 계통의 資料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文學 言語學에 있어서는 言語系統대로 구분하여 英美系 저메닉 言語系, 罗曼스 言語系, 슬라브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哲學, 宗教는 같이 묶어도 무방할 것이고 大衆文庫는 약간 중복이 있더라도 6個로 나누어 外國의 資料와 國內 모델 資料集을 區分 發展시킬 수 있다. 이러한 資料의 推定 需要量을 도표 77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전 문 분 야	경간물 (종별수)	일반자료 일년수량	일년자료 예산(\$)
문학, 언어학	550	5,600	36,600
대 중 문 고	400	3,000	14,900
일 반 참 고 서		2,000	30,000
계	950	10,600	81,500

2,500萬원 가까운 資料購入費는 현 國立中央圖書館의 資料購入費의 4배가 되나 5個年 計劃으로 目標額을 達成하려면 매년 350萬원 가량의 增額이 必要하다. 뒷장에서 資料種類的 區分을 明細한 바와 같이 中樞的 研究資料는 國外 資料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현재 增加하는 每年 3萬餘 권은 全部 國內資料로 하고 위에 推定한 萬餘卷의 追加 研究資料를 購入하도록 計上한 것이다.

3. 科學技術圖書館

현 科學技術處 산하의 情報센터(KORSTIC)를 國立圖書館의 하나로 하고 自然科學 工業技術 分野의 資料 서어비스에 注力하도록 充分한 專門司書 人員을 增強하고 國內外的 充分한 研究資料 確保를 위하여 資料費를 대폭 增額 補強한다. 물론 이 도서관은 일반 이용에 공개된다.

專門司書와 資料를 補強하는 것은 國會나 國立圖書館의 경우와 같이 專門分野別로 資料 서어비스를 하도록 한다. 이는 수십 가지 主題別 資料室의 設置를 요한

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主題資料는 되도록 한곳에 모아서 여러 專門家들이 같이 使用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科學工業技術分野를 專擔할 專門司書는 「도표 11」에 推算된 바와 같이 40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현재의 行政 要員을 그대로 두고 가외로 필요한 人員이다. 1人當 經費를 100萬원으로 잡으면 4,000萬원의 人件費가 必要하게 된다.

中樞的 研究資料는 「도표 45—48, 77」에 推算되어 있는 바와 같이 2,900種의 定刊物와 14,500種의 一般圖書資料와 \$164,000(4,800만원) 程度의 經費가 每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人員과 資料의 擴充 目標을 5個年 計劃으로 達成한다면 年次的으로 8名の 專門司書의 增員과 900萬원의 資料費 增額이 必要하게 된다.

4. 國立農業圖書館

國立農業水產食糧圖書館을 農林部長官 管轄 直屬 機關으로 設立한다. 이 圖書館은 물론 國庫에 의하여 維持되며 全國의 公·私 機關 團體 및 個人에게 서어비스 할 責任을 진다.

이 圖書館이 蒐集하는 國內外的 연구 資料와 서어비스 하는 分野는 農業經濟, 農產物, 農藝, 酪農, 牧畜, 養鷄, 純粹 및 應用生物學, 農藝化學, 殺虫劑, 林學, 應用林學, 水產業經濟-經營, 水產技術, 海洋學, 海洋生物學, 食糧, 營養學, 食品加工, 調理 등을 포함한다.

이 圖書館의 機構는 專門司書 館長과 2人的 副館長 아래 一般行政을 위한 總務部處; 收書, 整理, 保管, 資料交換 등을 一元的으로 主管할 圖書部處; 書誌目錄 編纂을 擔當할 編輯部處; 各 資料室 責任 專門司書를 以 構成될 수 있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專門司書要員은 뒷장 「도표 12」에서 明細되어 있듯이 15명이 계상된다. 1人當 經費 100萬원으로 잡으면 매년 人件費 1,500萬원이 專門 서어비스로 所要된다.

매년 소요되는 國內의 연구자료는 「도표 50—53, 77」에 明세된 것과 같이 定刊物 2,900種 기타 도서자료 14,500點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61,000 즉 한화로 약 1,800萬원이 된다.

目標數量을 5개년 계획으로 달성하려면 年차적으로 매년 3명의 증원과 350만원의 자료비 증액이 必要하게 된다.

5. 國立醫學圖書館

국립의학도서관을 설립하되 보건사회부장관 직속 기관으로 한다. 이 도서관의 위치는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내에 둠으로써 값진 자료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물론 이 도서관은 건국

의 의과대학교, 보건기관, 병원, 의사, 의료업자, 저술가 및 일반에게 공개 이용된다.

이 도서관은 국립농업 수산식량 도서관과 유사한 기구를 가지고 조직된다. 가장 중요한 부처는 물론 專門司書가 管轄하는 主題別 資料室이다. 「도표 13」에 明細된 主題 專門司書의 需要 人員數는 20명 따라서 연간 인건비는 2,000만원이 계상된다.

매년 소요되는 國內의 연구자료는 「도표 77」에 明세된 것과 같이 정간물 2,500종, 기타 도서자료 7,350종,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93,950 즉 한화로 약 2,700만 원이 계상된다.

이상의 目標數量의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하여는 年차적으로 매년 4명의 專門人員의 增員과 자료비 550만 원의 증액이 必要하게 된다.

6. 國立教育圖書館

국립교육도서관을 문교부 산하에 설립하고 현 중앙교육연구소와는 상관 없이 운영한다. 이 도서관은 물론 교육계 및 일반에 공개 이용하게 한다.

이 도서관은 다른 국립도서관과 유사한 기구를 가지고 조직된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론 전문적인 자료 서어비스이다. 이를 위하여 「도표 6」에 明세된 바와 같이 12명의 주제 전문사서가 자료실별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 사람들을 유지할 매년 인건비 1,200만원은 그들이 진국적으로 교육계에 할 수 있는 혜택에 비하면 극히 적은 投資이다.

이 도서관은 國內의 모든 교육관계 연구도서, 잡지, 시청각교재, 표본, 교과서 교과자료 표본 등을 廣範하게 蒐集한다. 「도표 40—43, 77」에 明세된 바와 같이 정간물 500종, 其他 資料 5,000종, 이에 소요되는 자료비는 매년 \$28,400, 韓貨로 780만원이 계상된다.

이상의 목표를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달성하려면 年차적으로 2—3명을 매년 증원하여야 하고 자료비 증액은 매년 156만원 정도가 되겠다.

7. 國立音樂藝術圖書館

국립음악예술도서관을 合同하여 문교부 管轄內에 設立한다. 이 도서관은 다른 국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공개되며 누구나 그 서어비스를 받게 한다.

이 도서관의 기구와 기능은 다른 국립도서관과 사유하다. 즉 주제별 전문자료 서어비스에 중점을 두고 이 서어비스를 위하여 다른 보조적인 행정기구가 조직된다.

주제별 전문사서의 소요 인원수는 「도표 7과 8」에 明세된 바와 같이 음악에 3명 미술에 7명 기타 3명으로 合計 13명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을 위한 1年 인건비는 1,300만원으로 계상된다.

음악관계자료의 추정 수요량은 「도표 60—64, 77」에

서 명세된 바와 같이 정간물 240종, 기타 도서 및 음반녹음자료 6,300점, 매년 자료비로 \$30,900, 즉 850만원이 필요하다. 미술 예술관계 자료의 추정 수요량은 「도표 66—69」에 명세된 바와 같이 정간물 550종, 도서 및 시각자료 6,200점, 일년자료비 \$38,250, 즉 韓貨로 약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된다.

5개년 계획으로 이상의 목표 달성을 꾀한다면 음악에 매년 1명씩 3년만 증원하면 되고 美術, 藝術에서는 1명씩 3년, 2명씩 2년이면 된다. 자료비의 증액은 음악에서 매년 170만원, 美術, 藝術에서 200만원이면 된다.

8. 圖書館資料交換

모든 국립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 달리 일반 대출 도서관이 아니므로 자료의 관의 대출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복본이 있을 경우 및 複寫資料를 요구할 경우에는 實費로 발송 또는 관의 대출을 허용할 수 있겠다. 이용자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하여 “정전기 복사기” 또는 마이크로 사진 복사기를 충분히 장만하여 자료 복사 서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립도서관들과 대학도서관 및 모든 공공, 학교도서관 사이에는 자료, 정보교환 및 기타 협력이 원만히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간의 전화통신, 우편통신 및 같은 도시 안에서는 사환 배달 연락을 유지하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국립도서관은 또한 전국의 도서관 및 단체, 개인들에게서 오는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하므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급한 요구는 해답을 직접 전화로 전달하고 부피 있는 자료를 요할 때에는 “제록스”와 같은 복사장치로 복사된 자료를 실비로 마련 발송한다.

9. 國家書誌編纂

각종 국가서지의 편찬은 국회도서관이 담당한다. 국가서지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純韓國書誌(韓國語로 된 韓國에서 出版된 圖書)(미국의 U.S. Catalog와 Cumulative Book Index 해당)

나. 외국어 간행물로 한국에 관한 도서.

다. 전국 도서관 장서 정간물 종합목록(신문포함)(미국의 Union List of Serials와 New Serial Titles 해당)

라. 중요 도서관 시청각 자료 종합목록.

마. 사회과학잡지 기사 색인.

바. 전국 도서관 장서 종합목록(중요 국립, 대학, 특수 도서관 포함)(미국의 National Union Catalog 해당)

각 국립도서관은 국회도서관의 국가서지 편찬사업에 참여하며 필요한 서지목록을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자체로 다음과 같은 서지목록을 편찬한다.

가. 각 도서관의 장서목록 및 신착도서자료목록.

나. 각 분야의 잡지 기사 및 정부단체 간행물 기사의 종합적 주제색인.

• 국립국회도서관—사회과학색인, 경영경제색인

• 국립중앙도서관—인문과학색인

• 국립과학기술도서관—과학기술색인

• 국립농업도서관—농업색인

• 국립의학도서관—의학색인

• 국립교육도서관—교육색인

• 국립예술도서관—미술색인, 음악색인, 무대예술 색인

다. 각 분야의 도서 서평 색인, 특수 주제 서지, 도서 해설.

10. 도서관사업 보급위원회 및 도서관 행정국 신설

현행 도서관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다음의 몇 가지 중요 사항을 법제화한다.

가.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관으로 도서관사업 보급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업의 확장 보장 보급에 관하여 정책적인 건의의 자문을 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매년 도서관사업(성인교육 포함)에 대한 전반적 투자의 규모와 정책 및 장기투자계획 등을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하여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반관 반민으로 3분의 2를 민간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민간인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실업계에서 알맞게 선출한다. 정부측은 문교부와 재무부의 대표로 한다.

나. 文敎部에서 圖書館局을 設置하여 3課를 둔다. 現社會敎育局의 成人敎育係를 課로 昇格시켜서 移管하고 公共圖書館課와 學校圖書館課를 둔다. 圖書館局은 圖書館普及委員會, 圖書館協會 등의 建議를 참작하여 學校 및 公共圖書館 設置 기준과 운영기준을 作成 이의 준수를 감독한다. 또한 圖書館 司書資格을 規制한다. 圖書館局의 가장 큰 機能은 圖書館 設置, 維持, 擴張 등의 豫算執行에 있다.

11. 政府 投資

가. 뒷장에서 자세히 推算하겠으나 圖書館 普及事業에는 다음과 같은 큰 財政的 뒷받침이 必要하다.

學校圖書館과 公共圖書館에 必要한 資料 豫算은 뒷장에 자세히 推定하였으나(도표 78, 79 참조) 여기서는 간추린 結果만을 要約한다. 10년계획(71—80)으로 하여 每年 豫算은 다음과 같이 公共圖書館에 4億 3千萬원, 학교도서관에 14億 千 3百萬원 合計 18億 4千 3百萬원이 된다. 이는 1971년을 基準으로 한 것이다. 1981년부터는 이의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겠다.

學校와 公共圖書館의 人件費 역시 10年計劃으로하여 最終 年도의 1년 豫算은 도표 17, 18에 推定한 바와 같이 公共에 22億 3千 5百萬원, 學校에 17億 7千 3百萬원이다. 10年 計劃에 의하여 이를 達成하려면 初年度에 10%, 2次年度에 20%, 3次年度에 30% 達成으로 매년 10%씩 增額해 나갈 수있다. 最終年度의 總 1年豫算의 規模는 50내지 60억원이 될 것으로 推算된다.

圖書館事業 普及 發展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항에서 추진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財源을 어디서 구하는가이다. 公共圖書館은 義務教育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重要課題로 取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에 몇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본다.

나. 가칭 도서관재단(圖書館財團)이란 半官半民의 財團을 立法 設立하여 政府의 財政의 投資에 의하여 育成한다(이는 美國의 國立科學財團(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유사한 것이다). 이의 財政은 教育債權發行으로 AID 또는 亞細亞 開發銀行 또는 世界開發銀行(IBRD)에서 吸收하게 하고 元利金 상환을 10年 내지 15年으로 하면 그 부담은 가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 15,000,000을 빌리면 5% 利子와 7% 원금 상환으로 12%인 \$ 1,800,000 즉 5억원 정도로 매년 부담이 된다. 이러한 政府投資를 10個年 計劃 또는 長期計劃으로 하면 1年 불입금은 많이 적어진다.

各道에 假稱 教育造林公社를 設立하고 圖書館公社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다. 이는 수익사업으로서 주로 포플러 造林 木材 生産으로써 얻은 수익의 一部는 各道の 學校教育費의 一部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再投資와 圖書館 事業費로 使用한다. 이의 經營管理는 營利企業體와 마찬가지로 하고 經營上 能率의 저하가 없는 한 樹林造成地는 各面, 部落으로 分散하여 學生들의 直接 勤勞 參與를 可能하게 한다.

每年 막대한 양의 植樹가 事後管理不足으로 30%~50%씩 損失을 보고 있으니 이것을 학생들이 전지지만 하면 그 收益이 대단하다. 韓國의 每年 50萬m³의 木材 生産의 20% 즉 10萬m³를 增産한다면 4億 6千萬원의 價値를 말한다. 韓國의 포플러 1억 그루 造林으로 每年 木材 250만m³ 生産이 장차 可能하다면 이의 5분의 2인 100만m³ 生産 金額으로 46억원의 수익이 도서관 목적을 위하여 使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政府로서는 첫 10餘年 間의 總額 1,500萬弗 내지 2,000萬弗의 投資를 하므로 全 國民의 國民階層과 學校教育의 充實을 꾀한 도서관 사업에 每年 50억원 내외의 수익금을 投下함으로써 教育目的 達成과 效率向上, 農村 소득증대, 고용증대, 圖書出版界의 부흥, 팔프목재공업 진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수적 소득을 바라볼 수 있다.

12. 圖書館公社

公共圖書館 및 學校圖書館의 國內資料의 一元的 구매, 整理, 編目, 分配를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法人體 假稱 「圖書館公社」를 設立한다. 이도 非營利의인 半官半民 事業體로서 國立中央圖書館과 直接 계약하여 事業을 執行한다. 全國 學校 公共圖書館 資料 豫算의 大部分을 供給할 이 公社의 自體 자본금은 근소한 것이다.

이 事業體의 事業은 國立中央圖書館長이 全國의 圖書館을 代表하여 一括의으로 要求하는 種類와 數量의 國內資料(視聽覺資料 包含)를 一元的으로 구입하고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本部 제작실에서 제작하여 整理過程을 完了하고 이를 指定된 圖書館 및 종류와 수량대로 定期的으로 配付하는 일이다. 이 밖에도 各圖書館, 마을文庫에서 使用할 各種의 圖書館資料 目錄을 一元的으로 제작하여 資料와 아울러 各處에 配付한다.

이 事業體는 또한 各 大學 圖書館 및 特殊圖書館과 個別的인 계약을 맺고 자료의 구매 정리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가칭 “도서관공사”설립의 취지는 수천의 圖書館에서 圖書 구입 정리에 허비하는 막대한 時間과 努力을 절약하고 司書들의 貴한 時間을 그들의 專門職으로서의 할 일에 더욱 많이 경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圖書館 司書를 圖書館 집 살림의 雜務에서 해방시키고 專門職으로서의 진정한 資料 서비스를 발전시키게 하는 革命的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13. 圖書館協會

가. 현 圖書館協會의 정관을 일부 改定하여 圖書館界 밖의 政治, 文化, 教育, 産業, 實業界의 有力한 人事를 個人 資格으로 參與시킬 수 있게 한다. 이는 社會一般의 圖書館에 대한 認識을 높이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 協會의 總力量과 資金을 한 가지 뚜렷한 기능으로 集中할 것이고 現在와 같이 여러가지 機能을 겸하려 함으로써 생기는 에너지의 分散 消耗과 效率 消失을 피한다.

즉 서지사업, 기술문제, 연구 出版事業과 같은 事業은 國立圖書館의 正常的인 機能으로 해야 할 일이고 技術問題 出版事業은 圖書館學의 各 分科學會에서 資金을 얻어 할 일이다. 協會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對國會 對政府 교섭, 對外的 계몽, 여론환기, 國民認識, 지지 증진, 圖書館 職業人의 資格, 權益, 保護 增進 등으로 이에 總力을 集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圖書館協會가 그 性格을 이와같이 變化시키려면 本 協會가 財政의으로, 自立할 것이 前提된다. 왜냐하면 現在의 國庫補助費는 再生産의 可能性이 明白한 事業을 위하여서만 支給되기 때문이다. (次號에 繼續)